

대학지구 분당 9캠퍼스 등대 목장 위동현 목자

처음 기도학교에서 사용되는 책 제목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따라 하는 기도?’, ‘책에 적힌 기도문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직접 소리를 내어 기도문을 말한다고?’, ‘그냥 읽는 것과 소리 내어 따라 읽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 여러 의구심을 안은 채 기도학교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분당채플에서 드러진 1주차 기도학교를 마친 뒤, 저는 오랜만에 제 진솔한 마음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관계에서의 실패, 취업 준비와 대학원 진학의 좌절,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이어지던 크고 작은 불협화음을 지켜보며 새해를 맞이한 저는, 어느새 사람이 두려워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토피 증세까지 심해져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제 마음은 단기적인 우물물이 아닌 영원한 생명수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학교의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제 삶이 기도로 지탱되기를,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첫 주차 기도학교 이후, 저는 매일의 삶 속에 기도를 녹여내고자 애썼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쏟아내던 자학에 가까운 비판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 찬양을 틀어 놓으며 주님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잠 좀 자고 싶습니다.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아 일상과 건강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겪었던 아픈 기억들이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와 제 마음을 뒤흔듭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 두었던 서러움과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불면증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았고, 아토피도 여전히 심했으며, 과거의 실패는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괴로움만을 향하던 기도가 조금씩 다른 이들을 향한 중보기도로 옮겨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장원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안고 살아가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대학 입시 결과 앞에서 불안해하는 눈빛, SNS에 올라오는 소식들로 조급해지는 마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관계의 어려움, 마음 깊이 자리한 불안과 슬픔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갉아먹는 목소리 대신 사랑의 언어로 자신을 다독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 중에,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날이 참 많았음을, 기도에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조연과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시간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일에도 쉽게 놀라고, 한마디 말에도 상처받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겨울수련회 토요일 저녁 집회를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헤릿 수풀가에 웅크린 채 밀려 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저 역시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울부짖고, 솔직히 고백하며, 때로는 아이처럼 매달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삶은 언제나 형통과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일라로 올라갔지만, 그 결과 더 깊은 도망의 길로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순종의 길에는 때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며,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영광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환경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맡겨진 그일라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숨는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걸어가겠습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속 가장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온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경청의 태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제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힘난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세상
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제 삶을 주님의 뜻에 맡겨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